

빈고활동가대회 1부

모듬별 주요 논의 내용을 기록해주세요.

MYUNGJIN MOON 20/12/22 11:45

안내 - 옆에 자기 모듬에서 나온 주요 이야기들을 적어주세요 (기록자와 발표자를 미리 정해주세요)

전체 공유 시간에는

"모두가 끄덕끄덕 한 이야기 and/or 다른 팀에 이걸 꼭 공유하고 싶다"를 모듬별로 정해서 발표해주세요.

참가자

판다리 지음 날맹 정훈 제제 설해 다을 윤기쁨 우중산책 헤일러 살구 로사 파이퍼 재환 송 미어캣 형석 디온 우더 반바지 부갱

1모듬(부갱, 우중산책, 제제, 헤일러)

공동체에 특정한 상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이용활동과 관련된 원칙들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물음

공동체가 꼭 3명이거나, 한집에 모여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고 열려 있을 수 있다. 서로 떨어져 네트워크로 묶일 수도 있고, 한 공간을 점유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3명 이상의 체제가 유지될 필요는 있겠다(부갱)

(윤기쁨) 웹자족은 이용활동을 위해 모였다고 보다는, 이미 구성된 웹자족이 빈고 이용활동도 하고 있다. 웹자족은 이미 자본주의적 체제 (생산과 재생산을 강요하는, 결혼하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안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그런데 웹자족 공동체 그 자체의 목적과 활동 이외에 빈고와 관계맺기를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

(부갱) 웹자족의 모습을 빈고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크고, 빈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중산책- 빈고 이용활동을 위해 공동체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원칙을 제시할 필요는 있는데, (웹자족과 공룡 등은 공동체 자체가 있고 빈고와 유기적으로 결합했지만), 이용을 하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헤일러) 이용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면 서로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고, 효용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 - 익명

(부갱) 자금용통을 위해 다른 개인신용 등 (이자만 놓고 보면) 더 유리한 방법이 있는 때에도 빈고와의 활동을 위해 빈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중산책) 공동체조합원보다 개인조합원이 더 많은 상황. 빈고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면 좋을지

(부갱) 이용활동과 관련해서는 자기 출자 금액의 3배까지는 (개인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좀더 보완하거나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동체에만 방점을 두기보다는 원칙을 공동체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도 있지 않는지.

공동체 이용활동

이용활동

공동체를 만드는 데 꼭 3명이 필요한가?

공동체의 새로운 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정상형태의 공동체를 강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형성하는 행위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이지 않은가

현 상태의 이용활동 원칙이 좀 더 느슨해 질필요가있다.

비대면으로 만나는 게 이어지다 보니까 원칙이 느슨해 저도 될 것 같다.

웹자족은 3명이 모여 있는데 이용활동도 할 수 있으니 해보자

빈고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웹자족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어떤 공동체의 상이(대안 가족, 정상성에서 벗어나 있는) 있는데 자꾸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빈고 뉴스레터에 글을 싣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빈고 조합원을 초대해서 웹자족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는데 코로나때문에

공룡도 이미 있는 공동체였는데

공룡과 빈고의 정체성을 결합 시키려고 하긴 하는데, 웹자족이나 공룡이나 우리가 하려는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빈고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꾸리는 행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

빈고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

어떤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공동체 자체가 있고 빈고랑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면 빈고 이용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이용에 대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기로 하고 책임을 지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앞으로 이용을 위해 만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빈고 전체 단위에서 모임을 활발하게 기획하기 전에는 이용활동을 위한 개인들끼리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용활동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개인조합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공동체 말고 다른 방식의 고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다.
개인조합원 이용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

2모둠 (송, 미어캣, 살구, 오재환, 파이퍼)

공유지를 같이 가꾼다는 것?

공유지를 사람들이 같이 가꾸어나가지 않으면 결국 자원만 남을수도 있어요.

합의

어떻게 같이 가꾸어 나갈것인가.
내가 어떤 주체가 될수 있을까.

공동체들의 공동체

장르가 다양해지고,
각자의 공동체가 할일도 많고
공동체들의 연결이 점점 어려워진거?

공동체를 만드는것도 어려운데 ^^, 잘 운영하면서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는거도 어렵네? -익명

빈고가 공동체인가?

빈고가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만날수 있을까?

꼭 빈고가 공동체일 필요가 있을까? 은행으로 역할하면 어떨까? -익명

빈고가 개인조합원이나 공동체 이용을 둘다 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공동체와 빈고를 이어보고 싶은데, 공동체 활동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움. 둘 셋 이상이 모여서 공동체적 가치에 주목해서 활동하면 공동체가 아닐까.

빈고 운영활동 외에도 각자 조합원들은 자신의 활동,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 활동 그룹을 잘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빈고활동. 물론 그것이 반자본적이고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활동이라면.

물론 직접적인 빈고활동을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삶을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면 빈고 활동이 아닐까.

빈고가 공동체냐 아니냐 이런 질문보다는.

빈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선뜻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음. 대안은행이 아니었다. 진입장벽이 높다.

빈고가 어렵고,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3모둠(상현, 우더, 로샤, 설해, 정훈, 해사)

메모

공동체와 빈고의 역할 고민

활동하는 별도의 공동체가 없는 입장에서, 각자 공동체가 있겠지만 빈고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 (정훈)

빈고라는 이름으로 어떤 공통성을 가질 수 있을까. 내부적인 활동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공동체 성원을 확장해야 (판다리)

공공 공동체로 소속되어 있음.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느슨한 고리라고 생각. 느슨한 고리가 계속 느슨한 고리로.. 공릉에서도 대안경제, 공동체 은행에 관한 강좌를 열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가입시키고 했던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했던 시기가 있는데, 요즘은 내부에서 느슨해져 있는 시기기도 함 (설해)

느슨해진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 (상현)

단체 내부 상황들이 영향을 많이 미침. 주력활동이 뭔지도 영향이긴 하겠지만. 인적 네트워크로는 확장되었지만, 대안경제 등 주제로 얽히는 일 적은 듯. 아직 고민이 부족해서가 아닐지. (설해)

활동하고 싶진 않지만, 코로나때문에 가입이 주저되기도 하는 상황. 공동체 가입은 주저. 가입해서 뭘 할 것인지도 고민. 도움을 받기 위해 빈고 가입했지만. 공동체 가입에 대한 고민이 있음. (로샤)

빈집에 오래 있다가 따로 골목쟁이네 와 있음. 빈집도 줄어든 상태고 모두들 집이 없어졌다는 얘기 듣고 놀람. 주거 기반 공동체가 서울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 왜 그럴까? 그 때문에 빈고도 공동체에 대해 다른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 활동 공동체를 더 많이 가입. 주거공동체를 만들어 내기가 부담스러운 부분.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꺼려지는데, 은평에 몇 개 있지만 왕래가 활발하지 않음. 예전에는 빈마을 마을잔치, 마을 회의 많았는데 지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삶 자체가 각자의 생활이 절박한 요인이 있을 듯. 빈고의 장점은 상업적, 경제적이지 않은 활동들을 기획하거나 빈고에서 같이 할 수 있다. 소모임, 공동체 통장. 계모임 등 다양한 소조직들에서 관계를 만들고 같이 하게 되는 빈고의 자산인데, 이걸 하기 힘들어진 것 있음. 공동체도 전국단위로 되었고, 전국 단위에서는 온라인 소통 말고는 어렵다. 전국 단위에서 느슨하더라도 같이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더)

공릉도 일종의 활동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다리)

아예 모르는 사람이 오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상 필요에 따라 월세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워크숍 개최 계획 있음. 기본적으로 손님집 운영. 공간이 있으니 좋았다. 코로나 시기에 열린 숙박기구로 쓸 수 있을지는 판

단해야 하는 시간. 올 한 해 상황에서 외부연대활동 했는데, 활동가 초대하고 모이기도 하고. 민주노총 이런 데는 집회한다면 눈총받지만 작은단체로 괜찮았는데 내년엔 소규모라도 할 수 있을까 고민. 관계는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공동체도 소멸되기도 하고, 변화이 있어서 멈추지 않고 활동. 새로운 사람 만날 때 가입 동의하진 않지만, 대면하지 않는 관계에서의 신뢰관계 형성 고민.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가치를 공유하고 일상적 신뢰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설해)

활동 - 주거 공동체 중간쯤 형태가 게스트하우스 등 외부인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닐지. 미세 대면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판다리)

어제 대면 모임 경찰 신고. 모이는 것에 대해 법의 제약 받는 것 상상하지 못함. (설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공동체 내부에서만 대안경제를 실현하는게 아니라 공동체 밖까지도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알리는 활동은 어떻게 할 것 인가를 빈고에서 함께 할 수 있지않을까 고민하고 있고 관심가지고 있다.

4모듬(다올, 날맹, 지음, 반바지, 디온)

개인 조합원으로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모두들'이 집을 없었다. 집을 많을 때 다섯채 정도 짓고 살았는데 지금 다 없어졌다. 공동체를 실험하는 조직이었는데 그리 된 걸 보면서 마음이 헛헛하더라

주거공동체가 쉽지 않은 게 있다. π 해방촌도 그렇고 지역에서 모여있을 때 힘이 있었는데.. - MYUNGJIN MOON

반바지님네는 잘 살고 있는듯? ♪ - MYUNGJIN MOON

따로또같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22년 5월까지 지금 살고 있는 땅 일부가 걸려 있어서, 집주인한테 연락도 갔고 서울시에서 토지매입 절차가 시작된다 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곳에서 오래 살고 싶어도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다. 해방촌도 임대료가 상승했던 게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특히 서울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공동체와 땅에 대한 부분들.. 공간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빈집할 때는 붙어 있었는데, 공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인데, 개인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 이 개인들은 다른 공동체에 속해있다. 자기 소속감을 어디에 두는가 떠올려보면. 예전에는 같이 사는 사람들 안에서 소속감이 생기고 경제활동 계획도 그렇게 이뤄졌는데.

지금은 각자의 회사 공간에 둔다고 할 때,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 패턴이기도 할 것이고, 그런 개인들을 묶어줄 수 있는 '글루'가 있어야 공동의 가치를 고민하는 것도 가능할텐데. 자기 소속감이 어디 있는가+각자 소속감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네트워킹 할 것인가의 질문 - MYUNGJIN MOON

기존에는 자연스레 있던 공터들이 국가/기업에 빼앗긴다. 그 공간들을 국가가 가져가서 재분배 하는데, 민간에서 하려면 자본이 부족하고. 공동의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 경기도도 그렇고.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관에 의해서 소속감이 이전된 부분들을 어떻게 재전유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 MYUNGJIN MOON

두물머리 청년아지트 탄탄. 행안부 공공사업.

마을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공공으로 흡수되는 경향속에서 빈고가 할 수 있는것?

지역 하천 공공부지에 지역 농부 네트워크 조직해서 농사지은 이야기, 나중에 기회 만들어서 공유하는 걸로! - MYUNGJIN MOON

공공성 그 자체, 공동체, 마을, 공유공간 이런 것들이 국가나 자본에 의해 흡수되고 재편되는 가운데, 그곳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은,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 포지셔닝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이트를 나누고 솔루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고민이 될 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 DION KIM

공동체 필요성 전적으로 공감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조직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라. 빈고와 뭔가 더 도모한다거나, 공동체 조합원들과 뭔가를 해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서로 다르더라

변화한 상황에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항상 물음표로 남아있는 고민지점 - MYUNGJIN MOON

자본에 기업에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성이 높다는 뜻이다. 자율성이 높다는 건 권력의 장에서 자유로운 만큼 결정할 일이 많다는 뜻이고 피로감이 큰 일이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는 우리의 고민. - DION KIM
